

공예디자인의 사회적 역할연구

A Study on the Social Role in Craft Design

김명란

수원대학교 산업미술과 조교수

1. 서론

2. 공예디자인의 개념

2-1. 공예라는 말

2-1-1. 준예술

2-1-2. 공예의 분열현상

2-2. 러스킨과 모리스

2-2-1. 예술의 미와 자연법칙

2-2-2. 노동과 인간다운 생활

3. 현대사회속의 공예와 역할

3-1. 감성적생활과 기계적생활

3-2. 사회, 문화적역할

3-2-1. 기계와 인간성

3-2-2. 교육적 역할

3-2-3. 기술과 예술, 공예와 디자인의 협조

4.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기계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수작업을 중심으로하는 공예산업이 사양화 되고있다.

산업혁명에 대한 당시의 사회문제를 비판했던 러스킨과 모리스의 사상은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연구는 공예활동의 발전과 위상정립을 위하여 그들의 사상을 중심으로 공예의 본질적 개념을 정리하고 공예의 사회적 역할을 논하고자 하였다.

기계생산에 의한 반발로 소비자의 취향이 개성화를 요구하고 생산라인의 소량다품중화의 문제를 공예적 생산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공예생산의 존재 필요성을 입증하며 더욱이 대중의 정신적생활이 중시되는 현시점에서 공예의 사회적 역할로써 기계적생활에 대한 감성적생활의 교육적 역할의 중요함을 논했다.

ABSTRACT

Today craft design becomes of the declining industry by the advanced machine technology. Criticism of Ruskin and Morris about the Industrial Revolution has a great influence until the pres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new craft movement to conceived new craft's social role is placed emphasis on education for the whole man.

Keywords

craft concept, technology, social role, Morris.

1. 서론

인간은 두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두손이 자유로워져서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도구를 만드는 두손의 움직임으로 인간의 두뇌가 발달하고 사회를 형성하여 문화생활을 즐기게 되었다. 제정일치의 사회였던 고대인들의 중요도구들이 祭祀용이고, 봉건사회에선 농기구가, 전쟁시에는 무기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량생산용의 기계류들이 중요도구로 고안되어 그 사회의 목표와 추구하는 이상에 따라 도구는 그 모습을 달리하여왔다.

현대의 공예산업은 첨단산업에 대한 관심일변도에 의하여 사양 산업으로 전락하고 있고 윌리엄 모리스의 지적대로 “예술이 노동에 있어서의 인간패락의 표현이라는 점과 인간이 노동에 의해서 즐거움을 맛볼수있다” 는 인간 근본적 욕구인 생산방법을 즐기는 일은 이미 허락되지않는 사회가 되었다.

기계테크놀로지에 반대입장이었던 영국의 윌리엄 모리스가 모던디자인의 선구자로 손꼽히는 이유는 “美的 민주화” 라는 사상과 그 실천의지에 있다. 또한 그의 주장중에 인간의 생활환경에 대하여 자연환경과 생활속에 예술적 도구를 만드는 공예의 수작업의 중요함을 강조하였던 점은 현대생활에도 적용될 만큼 예지력이 뛰어난 부분이다. 본 논문은 모리스가 지적했던 공예작업의 중요성과 사양화되는 공예산업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역할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취지아래 연구되어졌다.

2. 공예디자인의 개념

2-1 공예라는 말.

지금까지 쓰여온 도구라는 말과 공예라는 말의 역사를 정리해본다. 현재 우리들이 보통 사용하고있는 의미의 공예-아름다움이 어느정도 요구되고 있는 도구류-는 일본 명치유신 이후의 새로운 언어라고 생각해도 좋다. 그것은 art 나 fine art가 미술이라고 번역될때 craft나 technology의 개념을 포함한 말로써 일본 명치유신 초기에 만들어진 것이다.⁴⁾ 그러나 공예라는 용어는 이러한 서구용어의 번역어로 만들어진 말은 아니다. “미술”은 새로운 용어이지만 “공예”는 원래 중국어이며 회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技藝, 근본적으로는 수공적인 것 즉 수공예를 가리키거나 또는 예능 일반을 칭하는 것이지만 대체로 수공적 생산에 의한 것을 말한다. 1900년에 쓰여진 <중국공예연혁사>에는 수공예에 한정하고

⁴⁾前田泰次, 工藝概論, 東京堂出版, 1986, p34.

⁵⁾遠藤元男, 竹内厚子, 日本史小百科<工藝>, 遠藤出版社, 1965, p11.

있다. 수공업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공업과 공예의 실질적인 일치는 일본에서도 1860년대 명치유신 시기까지

쓰였다. 그이후 미술의 회화, 조각을 포함한 공예개념에서 혼란을 겪고 “공예는 미술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화, 조각과 별개의 것”이라는 생각이 유력하게 되어갔다. 이것은 공예의 입장에서 보면 커다란 변화로써 공예작가의 사회적 지위와 함께 공예의 앞날이 위험하다고 지적되기도 했다. 때문에 이 말의 초기의 용법을 보면 자연적 생산을 인공적으로 원조하는 일이나, 자연물을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물건을 만드는 일, 일반을 포함하고자 했던 흔적이 보인다. <5>

工과藝를 자구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기술로 물건을 훌륭하게 만들거나, 훌륭하게 행동한다거나 하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 훌륭하게 도구기물을 만드는 일이 공예의 일부로 생각되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 의미에 가까운 공예라는 말이 일본에서도 쓰여지게 되었던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급속히 국세가 발전하여 경제상태나 사회조직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그변화에따라 이 말의 내용도 따라 변하여 왔다.

일본의 공예에 상당하는 서양의 말도 여러가지 있다. 영어의 craft는 역량이나 기량이나 수련이라는 의미와 이것이 구체화한 모든 공예의 의미도 갖고 있다. Handy-craft라고 하면 수공업가되고 Craftsman이라고하면 職人이나 工人을 의미한다. 똑같은 말로 Technology가있다. 이것은 Technic(기교나 기술)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일본에서는 공예라는 것보다 공학의 뜻이 강하다. Technics도 공예로 번역 할수밖에 없는 때도 있다. 이 이외에 비교적 새로운 언어로써 Industrial Art 라든가 Applied Art가 있다. 인더스트리얼 아트를 그대로 번역하면 공업미술이나 산업미술이 되지만 이것도 요컨대 광의의 공예의 일부로 생각되는 것이다. 어플라이드 아트는 응용미술 즉 물건을 만드는데 미술적 기술을 응용하는 것의 의미이고 장식적인 도구 기물을 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무장식의 도구기물이라 해도 그것의 형태에 美가 요구되어지는 경우에는 미술이 응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응용미술이라 할수있다. 인더스트리얼 아트도 어플라이드 아트도 광의의 공예의 일부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미술과 다른 것, 미술답지만 미술은 아니라는 기분이 내포되어 있는 말이다. 그렇지만 Craft나

Applied Art가 순수미술과 대립적으로 쓰여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새로운 시대(근대)가 되고 부터이며 그 이전에는 순수미술에 대한 Applied Art나 Craft라는 개념은 별로 의식되지않았다.⁴³⁾

한편 우리나라는 정시화교수에 의하면 1930-40년대에 발표한 고유섭의 공예개념이 1957년 ICSID(세계공업디자인단체협의회)창립총회에서 발표한 산업디자인의 정의와 같은 맥락의 개념으로 오늘날의 통념화된 미술로서의 공예개념과 다르다. 즉 고유섭이 서술하는 공예는 신라,고려,조선시대의 생활에 필요한 생산제품 그 자체로서 산업디자인(제품디자인)과 같은 맥락의 공예개념이라한다.⁴⁴⁾

공예의 개념은 이처럼 근대산업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 혼란스럽다. 그러나 공예의 본질이 쓰여지는 것(用)을 사람의 손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할 때 공예의 구분은 공예기술의 전문가인 공예가나 장인에 의해 일품공예작품을 지향하는 미술공예, 상업성을 목적으로한 공장제 수공업 형태의 산업공예, 순수취향에 따라 자신의 사용용도에 맞춰 만든 취미공예로 구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도 이 세 종류의 공예에 관한 고찰로써 종합하여 생각해본다.

2-1-1. 준예술(Lesser Art : 소예술)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활약한 존 러스킨(John Ruskin 1819-1900)이나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 1834-1896)는 두가지의 예술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모리스는 그하나를 <본질적 예술>로 다른하나를 <레서아트>, 즉 <준예술>로 부르고 있는데 그의 관심은 후자에 있었다. 그는 예술이란 말을 예술작품(회화,조각,건축)에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가정용품의 형태와 색채, 경작 및 목축용 장비,도시와 거리의 미관등 우리생활 일체의 외관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모리스의 희망이었다. 본질적 예술은 광대한 레서아트의 바탕위에서 꽃필때 건전한 것이 된다. 레서아트는 실용성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본질적 예술과 구분되지만 노동의 기쁨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질적이라 할수있다. 오히려 제작자에게도 사용자에게도 민중에 의해 민중을 위해 제작되어야하는 예술인 레서아트야말로 모든 예술의 근원이라 믿었다.⁴⁵⁾

모리스는 “근대가되어 회화나 조각에대해서 준예술의 공예가 분리했지만 이것은 양쪽 서로 불행한 일

이다.” 라고 했다. 회화,조각 및 도구 만들거나 건축은 이전엔 서로 합쳐진 하나였다. 서로 대립하거나 그 순수성을 묻는일은 없었다. 회화를 위한 회화, 조각을 위한 조각등의 의식이 아니라 회화는 벽장식의 벽화도 되고 병풍, 장지문의 문양의 회화였다. 금일의 순수회화와 다른 성질의 것이다. 조각도 예배의 대상인 불상을 만들거나 기물에 조각을 한다거나 장식물을 만드는 조각이었고 그 의미로는 공예적이라 할 수있다. 이 모두가 인간생활과 직결된 예술이며 동시에 일종의 도구였다.

예를 들어 일본의 다도에서 사용하는 찻잔이나 차항아리를 보면 그 형태는 찻물을 인간의 입으로 운반하기위한 그릇이거나 차잎을 보존하는 용도의 그릇이지만 茶人이 그것을 사용할때는 정신적으로 그것을 즐기고 있다. 즉 그러한 기물이 표현하는 아름다움을 형이나 양감,그리고 공간감각으로써 감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기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1648년 프랑스 왕립 아카데미 “회화,조각아카데미”가 설립되어 성공하자 회화나 조각의 순수성이 강조되는데따라서 모든 공예의 불순성--미 이외의 사용목적이 있다는--이 마치 다른 조형예술에 비해서 열등한 것같은 느낌을 주었다. 이 열등시되는 공예의 지위를 다시 회화,조각과 동등한 위치로 돌려놓기 위해 많은 공인들은 공예의 모습을 빌린 순수예술의 존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혹자는 미술공예라 부르고 일반의 공예와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다.

언어에는 그 시대마다 다른 사상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공예라고 하는 말속에도 각 시대의 역사가 숨어있다. 수련기교를 보여 주는 도구류를 공예품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갖는 광의의 도구를 만드는 인간활동을 전부 공예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각각의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도구를 생산하는 수단은 기술의 변천에 따라 변하여 가게 된다. 때문에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공예 역시 상반되는 양상을 띠기도하고 ,또 이러한 넓은 공예속에서 기술의 진보에 따라 공업이 독립해 갔다.

2-1-2. 공예의 분열현상<공예,공업,미술>

현대 영국의 저명한 사상가 허버트 리드는 그의 글 <Art and Industry>속에서 광의의 공예가운데 순

⁴³⁾ 前田泰次. 工藝概論. 東京堂出版. 1986. P34.

⁴⁴⁾ 정시화. “한국현대공예의 형상성”. 한국공예. 사단법인 한국공예가협회13호.1996. P17-18.

⁴⁵⁾ 김재은편역. 디자인의 철학. 창지사. 1994. P56.

수미술이 근대가 되어 독립하기 시작했고 또 산업혁명 이후에 공업이 무역정책의 필요에 의하여 응용미술화 되어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서양만이 아니라 동양에서도 같다.

“일본 명치초에는 공업과 공예는 때때로 혼동해서 쓰여졌다. 그것은 그 시대의 사회가 아직 충분히 공업화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차체에 분화해 갔다. 즉 공예는 손과 직결하는 공작도구로 물건을 조형하는 세계로, 공업은 기계에 의한 생산의 세계로 나누어져 갔다...” 일본에선 공예의 생산양식에 따라 역사적 단계에 근거를 두고 민예, 미술공예, 산업공예로 나누기도 한다. 공업, 공예는 근본적인 구별이 없이 단계적으로 변화해 왔다. 즉 어로, 수렵, 농경에 부수적인 가내작업, 가내공업은 민예로, 수공업 또는 그것이 조직화된 공장제 수공업 즉 매뉴팩처어의 단계에 있는 것은 미술공예, 도구에서 기계로 발전한 공장제 공업(기계생산)은 산업공예의 단계를 가리킨다. 공예는 이처럼 역사적으로 단계적 생산양식의 길을 따라 진보해왔다.⁶⁰⁾

러스킨은 <The Two Paths>라는 책속에서 “산업(Manufacture)이란 도구와 기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의지하여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고, 기술(Art)은 인간의 손과 지성을 함께 움직이는 것이고, 미술(Fine Art)이란 인간의 손과 머리와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이다 “ 이처럼 인간의 조형적 생산활동을 손과 머리와 마음으로 설명하고자 한 그의 생각은 요즘도 영국의 산업지도자나 미술교육자들 사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류기술의 역사와 함께 진보해온 공예의 분야는 공업과 미술이 분화된 후 손의 기술을 중시하는 것으로 디자인과 분류되기도 한다. “공예가 순수미술과 디자인에 비해 인간의 욕구를 총체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음을 확인”⁶¹⁾ 한 이론도 있지만 공예는 생활속의 용과 미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업적기술, 미술적재능, 지성이 모두 합일되어야 하는 것으로 요컨대 무엇이 중심이 되고 기본이 되는가에 따라 공업, 미술, 공예의 존재개념이 달라진다고 하겠다.

2-2. 러스킨과 모리스

현대공예의 본분을 생각하기 위하여 러스킨이나 모리스의 사상을 검토해 본다.

러스킨이나 모리스는 산업혁명이 가져온 기계문명에 반대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즘의 생활과 무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생활의 평등화와 생활의 즐거움을 주장했던 점에서 그들은 현대적이었다.

러스킨은 미술비평가, 사회비평가로 일컬어진다. 그의 사회사상의 핵심 또한 미술비평에 있었고 러스킨에게 있어서 예술의 문제는 동시에 사회의 문제였다. 따라서 그를 중요시하는 이유 또한 바로 그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대화가론” 속에서 러스킨은 미의 의미를 크게 <상징미>와 <생명미>로 대별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상징미에의 추구에서 태어난 것이 미술비평이고, 생명미에의 지향의 결과가 사회비평이었다. 이 두비평의 기본바탕은, 신에 의해서 정해진 “보편적 질서로서의 美” 라는 신념에 있었다.

2-2-1. 예술의 미와 자연법칙.

러스킨은 “어느나라의 예술이든지 그것은 그 나라의 사회적, 정치적 덕성을 대표한다. 한 나라의 예술이나 일반적인 생산적, 창조적 에너지는 그 나라의 윤리생활의 정확한 지표이다.” 러스킨이 예술에 관심을 가진 것은 예술이 신성한 유기적 세계의 가장 인간적인 측면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유기적 원리를 잠식하는 매커니즘에 대해서 적의를 감추지 않았다. 러스킨은 영국이 기계문명화되어 자연의 풍경이 파괴되어 가는 것을 한탄하고

“혹시 이러한 상태가 영국의 장래라면 의장도 미술의 발달도 없을 것이다...미술은 그 주위에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여유나 그러한 환경속에서 발달하는 것이다. 工人의 주위에 아름다운 것이 없다면 그 손에서는 절대로 아름다운 것을 만들수없다. “라고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예술의 미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런 그는 진실한 미술은 자연을 배끼는 것(단지 모방만이 아니라 자연이 갖는 미를 해석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다. 러스킨은 모든 미는 자연의 법칙에 기초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좋은 장식은 당연히 자연의 법칙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⁶²⁾

그리고 러스킨의 사상을 그대로 계승했다고 자칭하는 모리스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은 어떠한 형태를 이루고 있고 혹시 그 형태가 자연과 조화해서 자연을 도와주는 경우에는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혹시 자연과 조화하지 않고 자연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추한 것이다.” 라든가, “예술이야말로 자연미의 유일한 수호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

⁶⁰⁾ 遠藤元男, 竹内淳子. 日本史小百科. p13.

⁶¹⁾ 양덕환. 공예가의 사회적 역할.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p36.

⁶²⁾ 김재은편역. 디자인의 철학. p36.

의 이러한 생각은 현대의 환경문제에 대한 경고를 하고있다. 이처럼 예술활동의 기본조건을 자연과의 합일에서 찾는다는 것은 오히려 동양의 정신세계와 같은데 내면적인 뒷받침이없는 생활의 완성은 있을 수 없고 생활의 완성에 봉사하지 않는 예술은 진정한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한 러스킨의 생각은 정신세계를 중요시하여 온 동양인들이 오히려 물질문명에 압도당하여 잊고 있는 부분이기도하다.

2-2-2. 노동과 인간다운 생활

러스킨은 “예술 이외에 도덕적인 것은 별로 없다. 또한 노동이 없는 생활은 최악이고 예술이 없는 노동도 또한 잔인한 것이다.” 고 주장했다. 모리스 역시 “일을 할 때 즐거움이 없는 일은 할만한 가치가 없는 일이다.” 라고 예술에 있어서의 노동의 숭고함을 주장했다. 즉 그가 말하는 세계란 모든 사람이 노동을 기쁨으로 하는 세계였다. 이것은 인간생활의 최종점의 이상을 나타낸 것이었고 그 자신 그것을 실행하고자 했다.

모리스는 기계를 비판했다는 점에서 흔히 <지적 무식꾼>이라고 비난 받아왔다. 그러나 그의 시대에 기계생산이 비판받을 만큼 조악했던 사실 이외에도 모리스의 기계비판은 기계 그 자체라기보다 오히려 인간의 기계화, 또는 노동의 기계화를 수반하는 사회의 기계화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상업주의라는 이름의 기계에 분노했다. 그것에 대한 강한 불만의 이유는 물질적 번영을 획득하려는 욕구가 대중의 예술을 억압하고, 그 결과 대중은 노동이 가진 본래의 위안을 상실해 버리기 때문이다.

모리스는 가시적 세계의 수호자였고 그의 관심은 언제나 구체적인 공간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생활이었다. 아침부터 밤까지 작업장에서 계속 일하던 장인 모리스에게 있어서 노동자란 그 자신의 이름과 같았다. 모리스는 러스킨이 품었던 예술관을 장인답게 더욱 기능적으로 파악하려 했다.

“...특수한 사람의 행복을 위한 사회조직이어서는 안된다는 것, 즉 대중적 전인간적 사회의 확립이 필요한 것, 그것을 위해서는 노동이 즐거움이 되어야 하며, 그 노동은 창조성을 갖게 되어야 할 것,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합한 곳에 사회의 윤리가 있고 예술의 윤리가 있다.”⁴⁹⁾ 이러한 생각속에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많은 모순이 있기도하다.

수세공의 물건에는 즐거움이나 아름다움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유지될 수 있을까. 기계를 부정하는 문명생활속에 과연 평등한 민중생활이 성립될 수 있는걸까. 러스킨이나 모리스의 생각은 하나의 동경이었고 도저히 실현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현실사회는 점점 기계문명화가 진행되어, 자연의 푸른별은 무미살벌한 공장지로 변하고 대도회에는 아름다운 오피스거리가 생겼지만 그 이면에는 빈민굴이나 환락가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 또한 교통기관의 발달로 세계의 거리가 단축되어 스피드와 소음의 세계가 완성되었다. 이것이 러스킨이나 모리스의 사상에 대한 현실사회의 해답이었다. 그들의 사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계승되어 혹은 해석, 번역되어 금일에 살아 있으며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은 새로운 각도에서 재검토 되고 있다.

3. 현대사회속의 공예와 역할

고대사회의 공예가 인간생활의 전면을 보증했던 것에 대해 금일의 사회는 미술도 공예도 공업도 갖고있다. 인간생활의 대부분을 공업이 담당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공예는 인간생활의 어떤부분을 담당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말을 바꾸면 현대공예의 본연의 자세는 무엇인가라는 문제이다. 이것은 이를테면 공업이나 순수미술과 달리 공예의 역할이나 미술, 공업과의 연결을 찾는 일이다.

3-1. 감성적 생활과 기계적 생활.

공예는 생활속에서 태어나 그 생활을 지탱해 간다. 어떤생활을 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경우에도 공예는 그일에 참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공예를 생각할 때 우선 자기자신의 생활의 설계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거기에서 공예는 이중의 성격을 갖게된다. 하나는 현재 그대로의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공예이고 다른 하나는 이상적인 생활을 만들기 위한 공예이다. 말을 바꾸면 공예는 인간에게 시중드는 일을 하면서 그 인간을 이루어 만들어간다.혹시 이 이중성을 인정한다면 공예가는 점점 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1887-1965)의 말처럼 도구에 인간 개인의 정감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하여도 하루하루의 활동을 완전히 기계적으로 할 수는 없다. 우리들은 어쨌든 자신의 독특한 생활이나 자신다운 취미를 표현해 보고 싶어한다. 많은 사람은 군대생활처럼 획일적인 생활을 참아내지 못한다.

⁴⁹⁾ 前田泰次, 工藝とデザイン, 藝艸堂, 1985, p175-176.

그러나 이 독자성을 너무 주장하면 생활이 성립되지 않는다. 자신만의 천을 구하여 자신만의 의상이나 특수한 식기나 가구, 건축자재나 달것을 모든 사람이 요구한다고 하면 사회조직은 파괴되어 버릴 것이다. 예술성, 귀족성, 개인성을 도구속에서 구한다고 하여도 그것에는 그 자체의 한도가 있다. 즉 인간생활은 한편으로는 기본적인 감성적 특수성을 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계적 표준화를 요구한다.

우리들은 항상 상반된 것을 구한다. 즉 사회가 기계화되면 되는만큼 한편에서는 그 반대되는 원시적인 손의 기술을 요구한다. 사회가 직업화되면 될수록 다른 한편에서는 아마추어적인 것을 구한다. 또 일반에게 많이 매매되는 물건보다는 팔고 있지않는 것을 구한다. 따라서 이처럼 기계화된 현대사회속에서 공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생산방법에 있어서 수공예방법의 장점을 정리해 보면 첫째 기계제작으로는 할 수 없는 고부가가치를 갖는 생활용구는 주로 손으로 만든다. 둘째 기계로 만드는 것보다 손으로 만드는 것이 경제적, 기술적으로도 적합한 것은 주로 손으로 만든다. 셋째 감상용품은 손으로 만들고 그 손맛이 주는 아름다움이나 조형미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상품의 생산방법 이외에도 취미활동으로 자기 자신이 손으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제작활동 자체를 즐기고 그 제작품을 생활용구로 쓰는 취미공예의 역할 역시 산업화시대의 직업공예만큼 중요한 역할이다.

3-2. 사회, 문화적 역할

모리스는 적합한 질서가 있는 사회에서는 노동할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했다.

- @부끄럽지 않은 적합한 일.
- @건강에 유익한 아름다운 주택.
- @심신의 휴식을 위한 충분한 여가.

특히 노동과 여가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파악했던 점은 그가 오늘날의 산업시대를 예견하고 있는 것으로 그의의가 크다. 모리스가 수작업의 즐거움속에서 인간의 행복을 발견하고자 했던 것과 달리 르 코크 뷔지에는 노동을 기계력으로 대신하여 남는 여가를 순수예술로 즐기고자 했다.

기계문명이 발달한 나라의 성인의 태반은 그활동력을 무언가 다른 힘으로 제약받고 있다. 공장노동자의 경우 훨씬 심하고 그들은 큰배어나 공작기계의 앞에서 인조인간과 같이 같은 운동을 반복하지 않

면 안된다. 자동차나 전차의 운전수나 책상위에서 전표를 정리하거나 장부를 붙이고 있는 셀러리맨도 펜을 잡고 무기력하게 같은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기계적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의 대부분은 일속에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되는 작업으로 인간성이 상실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만을 가진사람들은 그 불만의 배출구로써 좀더 자유로이 손,발을 움직이는 즐거움과 자유를 구한다. 최근 아마추어 공예가가 증가하고있는 원인의 하나를 이러한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재료를 모으고 세공하고, 조립하고, 완성한다고 하는 일관된 작업은 분업의 일부만을 담당해온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기쁨이다. 자신의 일에 자신이 책임을 갖고 그 결과를 자신이 비판하는 자유. 이것이야말로 백년전에 모리스가 인간이 해야할 활동이라 했던 공예의 길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역할 역시 공예의 중요역할이기도 하다. 노동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그것을 일깨워주는 수단, 그것이 장래 공예의 역할일지도 모른다.

3-2-1. 기계와 인간성.

인간은 기계를 자신을 돕는 노예의 역할로써 제작했다. 스피드는 나날이 증대되고 동력도 또한 나날이 거대화해 가고 있다. 그것은 일면에서 인간에게 편의를 주지만 다른면에서는 인간의 능력을 퇴화시키고 기계에 종속시킨다. 기계를 통제하고 문명을 수정하고 인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생활을 확립하는 일은 과학문명의 발달만큼 중요, 긴급한 문제이다. 금일의 문명을 무언가 수정하는 일이라 보아 보다 나은 장래를 얻고자 하는 노력이 요즘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러스킨이나 모리스의 사상의 발전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동양사상의 흐름을 띠는 정신주의의 태두이다.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기계과학 만능사상에 대한 자발적인 불신의 등장이다.

인간은 손을 움직여서 물을 만드는 즐거움을 잃고, 유기적으로 물을 통합하고 다른 것과 서로 협력하는 기쁨을 잃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근래의 결점을 보충하는 유일한 길은 자발적으로 자유로이 그림을 그리거나 나무를 파거나 흙을 빚거나, 물을 제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리-드(Read)는 "예술은 본래 사회의 제전이였다. 예술은 사람들이 모여서 춤을 추거나 신을 찬양하거나 하는 일로 시작했던것이다... 예술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예술과 생활하지 않으면 안된다. 회

화를 보는것보다는 오히려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방관자로써가 아니라 각자가 주역이 되어서 예술창조를 하는 사이에 인간성이 도야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모리스처럼 기계를 부정하고자 하지는 않았다.

또한 뎀포드는 “...현대인의 균형과 발달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빠져 나가고 있는것을 우리들은 인식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이 잃어버린 요소는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인간적인 인격이다... 구원의 길은 인간개성을 기계에 실용적으로 적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계는 그 자신 생활의 질서와 조직의 필요에서 생겨난 산물이기 때문에 기계를 인간 개성에 재적응시키는 일이다. 결국 인간적 척도,인간적 템포, 그 중에서도 인간적 구극목표가 기술의 활동과 진행과를 변혁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들의 문명이 지금 예술과 기술의 상태에서 더 이상 깊어 들어가고 싶지 않다면 우리들은 실격된 인간을 구하고 인간을 되돌려 놓지않으면 안된다...고갈시켜버린 생기와 에네르기와를 다시 한번 예술속으로 주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10>}

이상과 같이 현대사회의 기계와 인간성과의 문제에 대한 공통된 해결방법으로 공예의 수작업의 특성은 현대사회의 고갈된 인간정서에 교육적 역할 담당으로써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3-2-2. 교육적 역할

인간은 육체와 정신을 조화시킬때 인격이 형성, 향상된다고 본다.인간의 궁극적 목적이 행복에 있다면 사회는 인간의 향상과 인간행복을 위한 기능역할을 담당해야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금일의 문명을 논하고 있는것이 미국의 뎀포드(L.Mumford)나 영국의 리-드이다.그들은 인간적 사회의 창조수단으로써 미술을 통하여 인간을 교육하는 것을 생각했다. 분열증상을 띠고 있는 현대사회를 비유하는 데는 이러한 예술을 통해서,인간의 직관력을 키우고 수인적 인간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리드는 “금일의 교육의 조직은 분열시키는 교육이라 할수있다. 그것은 사람들을 연결시키려고 하지않고 사람들을 분리시키려는 일을하고 있다....예술의 완성은 예술의 실행으로부터---도구나 소재에의한 훈련,형식이나 움직임에 의한 훈련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어야 한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교육에 있어서 모든종류의 예술활동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된다.---아름다운것을 만들어가

^{<10>} 前田泰次, 工藝概論, p190.

^{<11>} 위의책, p191.

는 활동이야말로 인간의 정서는 결정과 같이 아름다운형을 이루어 간다. 이것이 즉 덕의 형이기 때문이다.” 이 견해는 르코르뷔지에의 수리적 질서의 발견이라는 생각과 통하며 정신적으로는 모리스나 러스킨과도 통하는 것이다.

3-2-3. 기술과 예술의 협조,공예와 디자인의 협조

기계시대의 비인간화의 구원의 실제적인 방법으로써 뎀포드는 기술과 예술과의 악수를 제창했다. 즉 “기술과 예술은 여러시대에 효과적으로 하나로 묶여왔지만 -그 때문에 예를 들면 5세기의 그리이스인은 기술이라는 말을 미술과 실용과의 양쪽으로 곧조각에도 돌쪼개는대도 썼다.---금일은 이 표리일체의 두 면은 멀리 떨어져 나가버렸다. 기술은 차체에 자동화되고 점점 무인칭적으로 되어 보다 객관적으로 되었지만 예술은 그 반동으로 점점 신경질적으로 ,자기파괴적으로 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원시적이고 어린아이같은 표상법으로 다시 돌아가 있다... 생활의 이 두 면을 한번 더 사이좋은 친근관계로 가져가야한다.” 고 말하고 있다.^{<11>}

우리들이 잃어가고 있는 인간성을 어떻게하여 되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할때 미술은 단지 여가시간 없애기만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써 즉 인간생활의 기초구조로써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일상사용의 도구류도 또한 단지 무미건조한 기계나 장식으로써 만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생활과 물질생활을 조화시키는 것으로써 그 가치를 증대시켜 가는 것일 것이다. 그것은 기술과 예술의 협조로써 가능한 일이며 기술,예술이라는 분리가 아닌 일체화야말로 궁극적인 목표여야한다.

한편 기술과 예술의 협조의 문제와 똑같은 의미로 공예와 디자인의 협조문제 역시 중요하다.공예가들이 실생활용품만을 만들어 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본다. 공예가들이 공업적 대량생산 제품과의 경쟁에서 도태되고 있는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앞서 제안되어온 사상가들의 제안대로 그들이 자신의 일을 즐거움으로 제작을 한다고 하여도 공예의 인식이 대중화가 안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공예의 길은 험난할 뿐이다. 그렇다면 산업사회에서는 공예인을 무용지물로 두어야하는가, 아니 오히려 이미 진행되고있는 개성화의 시대에 요구되고 있는 소량다품종의 조건은 공예의 특성을 필요로하며 그로 인한 여러차원의 이익을 생각할수있다. 대중은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제품에 대하여

옛 것이나 손맛, 인간적인 것, 자기만의 개성적인 것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 공급방법은 기계만으로는 무리한 일이 되었다. 따라서 공예기술과 기계와의 협조는 필연적인 것이며 그를 위해서는 디자인의 활동이 주요해 진다고 본다. 각각분리되어 버린 공업과 공예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은 디자인 활동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적, 풍토적 현실은 각자가 높은 담을 만들고 서로 공유 교류할 수 있는 일을 어렵게 만든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공예의 분열 현상이 일어났듯이 원천이 동일한 것이었음을 생각한다면 현대의 요구조건에 따라 다시금 통일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현대 디자인의 기본원리인 협동방법을 익히고 현대생활에 적응하는 것 역시 현대공예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사회에서 유행하는 산학협동이나 전승공예와 현대공예의 만남등 사회구조속에 분리된 것을 다시 통합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확대되고 있다. 원래 공업, 예술, 공예, 디자인이 하나였듯이 공예의 기술 역시 인간생활의 기본적 행복을 충족시키는 분야에서 서로 연결, 협조되어 일체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야 한다고 본다.

4. 결론

러스킨이나 모리스의 사상속에 미래에 대한 예지력이 있음을 알게된다. 한편 역사가 흘러도 인류의 근본적인 목표는 변할수 없음을 느끼게 된다.

종래의 공예가라는 직업인들의 사회적 역할은 기계정보통신시대에 오히려 정신적 생활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 온 공예의 역할을 고찰한 결과 현대공예산업의 활성화 방법 및 공예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공업, 미술, 디자인과의 협조 내지 통일, 일체화를 주장해 보았다.

현대사회에서 공예디자인의 사회적 역할은 기계적 생활에 대하여 감성적 생활, 즉 자연과 손의 기술로써 인간정서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산업생산 방법 뿐 아니라 취미, 여가생활에서의 사회 교육적 활동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그 역할은 사회 각계의 홍보와 관심으로 디자인 되어져야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前田泰次.工藝とデザイン.藝艸堂.1986.
- 前田泰次.工藝概論.東京堂出版.1987.
- 權田保之助.美術工藝論.東京內田老圃.
- 김재은 편역.디자인의 철학.창지사.1994.
- 정시화.한국현대공예의 형상성.한국공예.한국공예가협회 제 13호.1996.
- 김용진 편저.한국민속공예사.학문사.1981.
- 榮久庵憲司著.김희덕 편역.도구와의 대화.(디자인 철학).한국디자인포장센터.1981.
- 허버트.리이드.정시화역.디자인론.미진사.1989
- 성완경 .기계시대의 미학.열화당.1979.
- 吉岡健二郎編著.美學を學ぶ人のために.世界思想社 1982.
- L.뎀포오드 .김문환 역.예술과 기술.을유문화사 1986.
- 遠藤元男,竹内淳子 著.日本史小百科<工藝>.近藤出版社.1965.
- 양덕환. 공예가의 사회적 역할.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9.